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7년 2월 22일 · 제 396 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김은수 실장,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글로벌 물류이슈 |

1. Agility사, 올해 신흥시장 물류 최대 변수로 중국을 선정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PSA, GM의 유럽 사업부(Opel, Vauxhall brands) 인수 검토
2. Alibaba社, CMA-CGM과 디지털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
3. 유럽 도로운송 연합 출범
4. 머스크라인, 이퀘이트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약 체결

| 해외현지리포트 |

1. GAC사(社), Hemas사(社)와 합작으로 스리랑카에 물류시설 건축





글로벌 물류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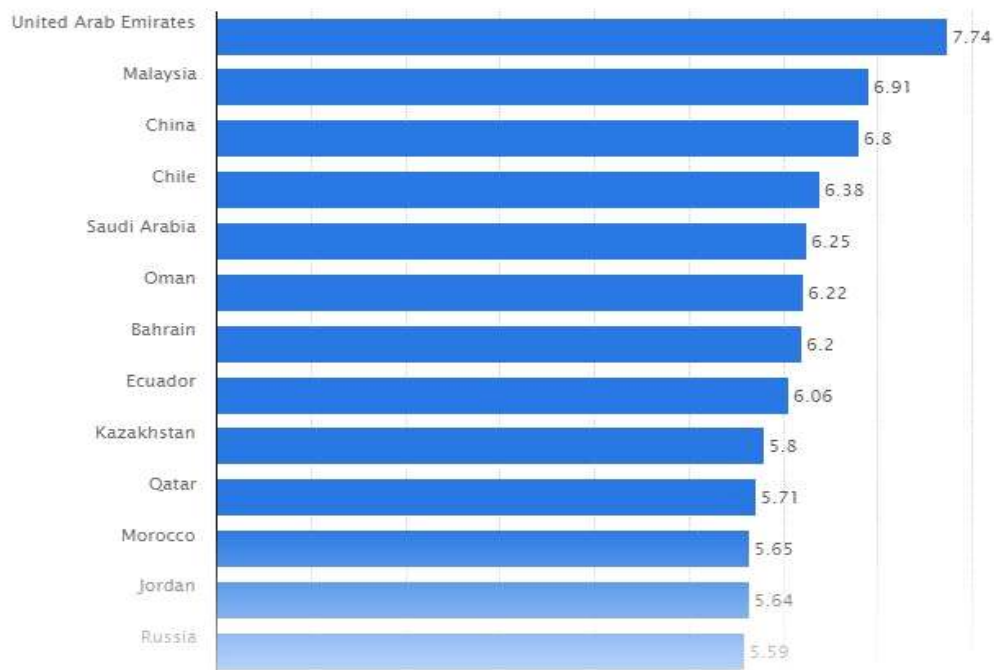
Agility사, 올해 신흥시장 물류 최대 변수로 중국을 선정

-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 Agility사와 영국의 조사업체 TI가 2010년부터 매년 신흥시장의 물류산업 발전 정도를 평가하여 발간하는 신흥시장 물류지수 보고서에서 올해 신흥시장 최대 변수로 중국이 선정됨
 - 신흥시장 물류지수 보고서는 올해로 8회째이며, 국가별 시장규모 및 성장 매력도(Market size and growth attractiveness, MSGA), 시장 적합성(Market compatibility), 시장 연계성(Market connectedness) 3개 세부지수를 종합하여 50개 신흥국 시장을 평가함
 - 상기 3개 세부지수가 10점 척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25% 및 25%임
 - 금번 평가는 800명 이상의 물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 Agility사는 올해 세계 신흥시장 물류판로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중국을 지목함(응답자의 10.5%)
 - 중국이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데에는 중국 제조업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고 e-commerce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 중국의 온라인 소매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
 - 기타 주요 변수로는 유가(9.4%), 미국 경제의 방향(5.7%) 순임
 - 2016년에는 낮은 유가(27.1%)가 세계 경제 및 무역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 바 있음
- 올해 평가 대상국가수는 이란, 가나, 미얀마, 앙골라 및 모잠비크 등의 5개국이 추가되어 50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이란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세계 물류산업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현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신흥시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
 - 앙골라는 석유 자원으로 역내 주요 부국 중 하나이며, 가나는 상당 규모의 광물과 석유 자원을 보유, 모잠비크는 케냐 및 탄자니아와 경쟁하는 아프리카의 허브라고 볼 수 있음
- 평가 대상 50개국 중 물류지수 순위는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임
 - 시장의 크기, 사업 환경, 인프라 및 운송망(transport connection)을 고려하여 50개의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가 2위에 올랐음(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1위)
 -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터키, 러시아 순으로 발표됨



- 운송 인프라 및 해상 및 항공 연결성은 신흥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함
 - 세부지수중 시장 연결성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중국, 칠레가 최상위를 기록함
 - 아랍에미리트는 종합지수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및 운송연결 부문에서는 1위에 오름

시장 연결성 요인 국가 순위

자료 : www.statista.com

- 동남아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물류지수 6.66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함(전체 4위)
 - Agility사의 Chris Price 아태지역 대표는 “말레이시아의 개방경제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매력적인 수출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이어,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고소득 지위를 가진 국가를 목표로 경제 개발을 지속해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의 리더는 물론, 다른 신흥국가들이 장기 전략 구상을 세우는데 있어서 모델로 삼는 국가가 될 것 같다”고 덧붙임
 -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50개 신흥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국내외 운송 인프라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시장 연결성 부문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세계 신흥시장 물류지수 2017 종합순위

Ranking	Country	2017 Index	2016 Index	Change in Ranking
1	China	7.88	8.00	-
2	India	7.14	6.83	1
3	UAE	7.07	7.02	-1
4	Malaysia	6.66	6.71	-
5	Saudi Arabia	6.48	6.67	-
6	Indonesia	6.41	6.50	-
7	Brazil	6.23	6.46	-
8	Mexico	6.15	6.25	-
9	Turkey	6.09	6.05	1
10	Russia	6.09	6.23	-1
11	Chile	5.88	6.01	-
12	Qatar	5.78	5.88	-
13	Oman	5.62	5.63	1
14	Kazakhstan	5.60	5.34	4
15	Thailand	5.53	5.77	-2
16	Philippines	5.42	5.48	-
17	Pakistan	5.39	5.21	3
18	Iran	5.35	4.97	8
19	Vietnam	5.33	5.25	-
20	Egypt	5.29	5.16	2
21	South Africa	5.26	5.43	-4
22	Morocco	5.23	5.19	-1
23	Bahrain	5.16	4.95	5
24	Nigeria	5.07	5.50	-9
25	Colombia	4.99	5.05	-1
26	Kuwait	4.98	5.12	-3
27	Bangladesh	4.94	4.96	-
28	Argentina	4.94	4.56	3
29	Uruguay	4.90	5.03	-4
30	Peru	4.78	4.85	-1
31	Algeria	4.73	4.55	1
32	Sri Lanka	4.67	4.67	-2
33	Jordan	4.58	4.40	1
34	Ecuador	4.44	4.44	-1
35	Ukraine	4.14	4.26	-
36	Bolivia	4.03	3.84	2
37	Ethiopia	4.00	3.78	3
38	Tanzania	3.98	3.76	3
39	Ghana	3.97	3.84	-
40	Paraguay	3.86	3.91	-4
41	Uganda	3.81	3.48	6
42	Tunisia	3.78	3.90	-5
43	Kenya	3.76	3.55	2
44	Venezuela	3.72	3.74	-2
45	Cambodia	3.58	3.55	1
46	Libya	3.57	3.70	-3
47	Lebanon	3.50	3.62	-3
48	Myanmar	3.45	3.46	-
49	Angola	3.38	3.40	1
50	Mozambique	3.38	3.46	-1

자료 : Agility(www.agility.com),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17'



자료 : www.agility.com

GDP 3천억 달러(USD) 이하 국가 기준 물류지수(상위 10위)

Ranking	Country	Market size and growth sub-Index	Market compatibility sub-Index	Market connectedness sub-Index	Total Index
1	Malaysia	6.65	6.22	6.91	6.66
2	Chile	5.29	6.25	6.38	5.88
3	Qatar	4.71	8.26	5.71	5.78
4	Oman	4.12	7.80	6.22	5.62
5	Kazakhstan	4.81	6.95	5.80	5.60
6	Philippines	7.03	4.36	4.08	5.42
7	Pakistan	7.25	2.95	4.51	5.39
8	Vietnam	5.73	5.32	4.87	5.33
9	Morocco	4.34	6.41	5.65	5.23
10	Bahrain	3.45	6.99	6.20	5.16

자료 : Agility(www.agility.com), 'Agility 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 2017'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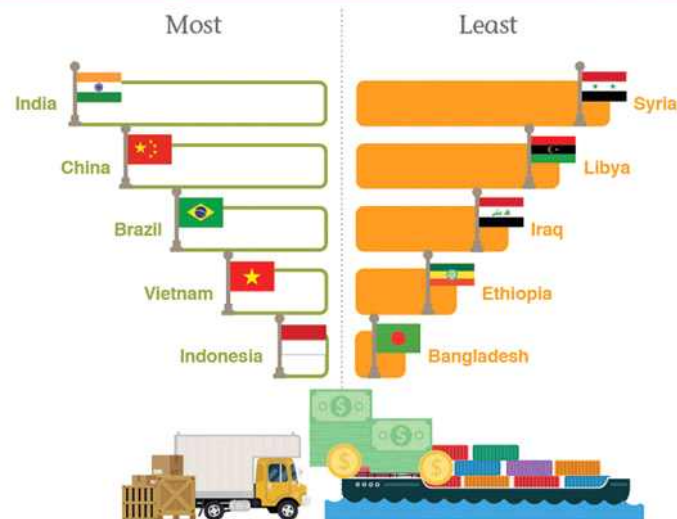
- GDP 3천억 달러(USD) 이하 국가들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시장 적합성, 그리고 시장 연결성을 고려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 8년 동안 조사되고 발표되고 있는 이번 지수는 많은 국가들의 순위 부침이 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흥국가들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음
 - 물류지수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개 국가들의 순위는 변동이 없으나, 상위 10위 국가들 중 7개 국가(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의 지수 점수는 하락을 기록함
 - Agility사의 John MannersBell 대표는 “작년 신흥시장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였음



- 그는 이어,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 환경도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무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함

국가별 물류산업 투자 잠재력 순위 (상위 5개국 및 하위 5개국)

Most and least potential for logistics industry investment *



* From a survey of more than 800 logistics and supply chain industry professio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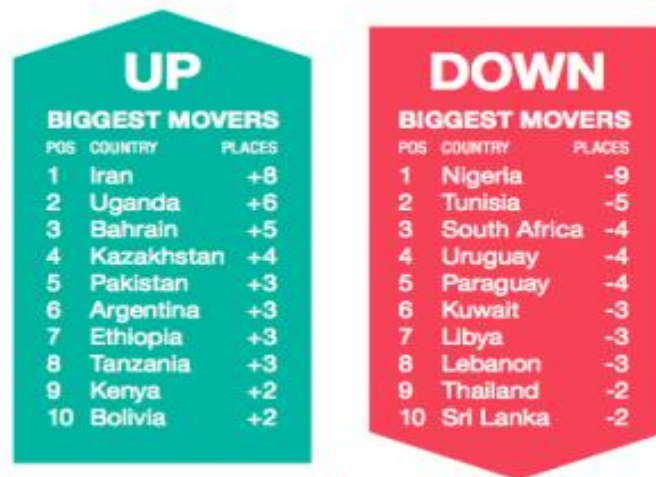
자료 : Agility(www.agility.com)

- 한편, 인도는 물류시장으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선정
 - 50개 신흥국가들 중 인도가 최고의 물류 투자지역으로 선정됨
 - 이번 설문에서 물류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물류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국가로 최고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를 지목하였음
 - 인도는 종합지수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음
 - * 2016년 기준 인도의 GDP 규모는 약 2.3조로 중국(약 11.3조)의 약 1/5에 불과함
 - Agility사의 아태지역 Chris Price 대표는 “인도 경제는 지난 2년 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큰 은행권을 제한하고 현금이 없는 지불 방식을 장려하는 인도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인도로의 투자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세제 및 경제 개혁으로 인도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함
 - 그는 이어, “베트남, 인도 및 다른 국가들은 낮은 임금과 인센티브로 제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 혁명으로 많은 화물이 이들 국가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국내 수요 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함
 - Agility사 Essa Al-Saleh 대표는 “신흥국가들은 세계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가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이 지수와 설문 결과는 국가별로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언급하였음



-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종합지수 점수가 많이 하락했으며, 상품 및 에너지 시장이 줄어들고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대비 순위 등락이 가장 심한 국가 순위



자료 : Agility(www.agility.com)

- 항공 화물은 미국-베트남 간 노선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42.7%), 해상 화물은 우크라이나-EU 간 노선에서 가장 많이 증가함(35.8%)

자료 : www.agility.com, 2017.1.25. / www.statista.com, 2017.2.1.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PSA, GM의 유럽 사업부(Opel, Vauxhall brands) 인수 검토

- 프랑스 차량 제조사 PSA(Peugeot Société Anonyme)그룹¹⁾은 GE의 유럽 사업부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GE의 유럽 사업부는 Opel과 Vauxhall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 본 거래가 성사되면, 자동차 업계에서 피아트-크라이슬러 합병 이후 최대의 인수합병 사례가 될 것이며, PSA는 시장 점유율 15%로 유럽에서 르노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될 것임(1위는 폭스바겐)
 -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PSA는 2016년 145만 대를 판매했으며 Opel은 이보다 조금 적은 100만 대를 판매했음
 - Opel의 시장가치는 26억 유로(28억 달러)에 이름²⁾
 - 이번 인수를 통해 PSA 및 GM과 물류업체 Gefco 사이에 향후 물류 시너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1) PSA Peugeot Citroën라고도 불림, Peugeot, Citroën, DS Automobiles 브랜드를 보유

2) Bloomberg News 발표자료 참조



- GM은 2009년부터 유럽 사업부의 영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변화를 진행 해 왔음
 - 유럽에서 생산량을 축소하고 판매와 브랜드 관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했음
 - 1999년 이후 GM의 유럽 사업부는 매년 적자를 기록했으며, Berenberg 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2010년 ~ 2016년 사이 11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GM은 2009년 유럽 사업부의 매각 계획을 발표함
- PSA 그룹과 GM은 수익성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나 최근 협력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2012년부터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오고 있음
 - 현재까지 유럽에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계획을 개시했는데 이 계획에는 PSA가 Opel과 Vauxhall을 잠재적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Gefco³⁾는 2012년 GM과 한국에서 쉐보레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캐딜락과 콜벳을 수입하는 것과 같은 GM 차량의 유럽 내 배송을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함
 - 4PL(the fourth-party logistics) 계약은 부품과 재료를 유럽 내에서 조달하여 GM의 조립공장이나 독일, 폴란드, 스페인, 영국 및 러시아에 위치한 동력전달장치(엔진 및 변속기) 공장으로 배송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2016년 11월 Gefco는 PSA 그룹과 글로벌 물류를 담당하는 80억 유로(88억 달러) 규모의 4PL 계약을 체결함
 - Gefco는 양사와 시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 밝힘

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2017.2.15.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3) PSA 그룹의 물류 자회사였다 독립함



Alibaba社, CMA-CGM과 디지털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는 프랑스의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CMA-CGM과 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17.2.14일, 알리바바와 CMA-CGM은 중국 항저우(Hangzhou)에서 디지털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함
 - 알리바바와 CMA-CGM은 양자 협력을 통하여 중국에서 지중해 및 아드리아 지역으로의 선적 예약 고객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기반 구축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이로써 One Touch 플랫폼을 이용하는 알리바바의 고객은 CMA-CGM을 통하여 직접 선박 예약이 가능하며, CMA-CGM은 고객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업계가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양 사는 MOU에 따라 CMA-CGM의 2개 항로(MEX1, BEX)에 대하여 선적 예약 서비스를 중국 화주에게 제공
 - 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을 연결하는 CMA-CGM MEX1 서비스는 평균 10,760TEU의 용량으로 청도, 상하이, 닝보, 안티안 등의 항만에서 지중해의 바르셀로나 및 발렌시아로 향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함
 - 또한 아시아와 아드리아 항구를 연결하는 CMA-CGM BEX 서비스는 리예카(Rijeka), 코페르(Koper), 트리에스테(Trieste) 및 베니스와 같은 아드리아해 항만과 상하이, 닝보, 치완 등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예정
- 한편, 중국의 알리바바는 정보통신기술과 물류망을 결합한 국제 상거래망을 구축하고 일상 소비재를 저렴하게 조달·판매할 수 있는 물류유통망 구축을 지속 추진
 - '16.12월에는 덴마크의 해운선사인 Maersk Line과도 One Touch 플랫폼 파트너십을 체결한바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해 옴
 - 또한 이스라엘의 해운선사인 ZIM 역시, 상하이에서 인도, 파키스탄 또는 사면에서 남미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플랫폼을 통한 선박 예약을 허용함
 - 이를 통해, 중국 화주는 운송 중간 단계인 포워딩 업체를 거치지 않고 알리바바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선박을 예약할 수 있음

자료 : www.cma-cgm.com, 2017.2.14. / www.cnn.com, 2017.2.16.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유럽 도로운송 연합 출범

- 유럽의 9개 국가가 도로운송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한 ‘도로운송 연합’을 결성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노르웨이의 교통부 장관들로 구성됨
 - 국내시장의 불법행위, 노동법 위반 및 사회적 투기 등과 같은 사안을 다루게 될 것
- 도로운송 연합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음
 - 기존의 유럽규정 개선을 통한 운송사업자들의 사업운영 용이화
 -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통제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향후 유럽도로운송 정책에 대한 ‘도로운송 연합’의 입장 표명
- 이 연합은 8가지 주요 실행계획을 발표함
 - 운전자의 업무와 사생활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 국제화물운송에 관련된 경상용차(light commercial vehicle) 대책 강화
 - 전자화물운송장(electronic consignment note) 사용 촉진을 위해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1956.5.19.)⁴⁾에 전자화물운송장 사용에 대한 협약이 추가되도록 추진
 - 국가 통제 기관에서 관련 데이터를 교환하여 서로간의 피드백 제공 및 목표 공유 등을 추진
 - 카보타지(Cabotage)⁵⁾평가 및 제어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계획을 공유
 - 현존하는 다자간 조직을 통해 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국가 통제 관행 교환을 강화
 - 도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을 독려하고 특히 운행기록기 조작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조사
 - 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⁶⁾에서의 역할 강화

자료 : www.logisticsandsupplychain.com, 2017.2.13.

강선미 연구원

051-797-4776, sunmikang@kmi.re.kr

4)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1956년 5월 Geneva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5) 카보타지(Cabotage): ‘한 국가 내에서 두 지점 간의 운송’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특정 국가 내 2개 지점 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장비(항공기, 선박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을 의미

6)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범유럽권의 경제적·기술적 교통시스템의 통합과 더불어 국가들의 교통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던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가 2007년에 세계 포럼 형태로 확대·발전됨



머스크라인, 이퀘이트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약 체결

- 덴마크 해운회사인 머스크라인과 쿠웨이트 최대 석유 화학 회사인 이퀘이트(EQUATE)는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함
 - 머스크라인은 해상 컨테이너 운송에 따른 환경 부하를 개선하는 국제단체인 클린카고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머스크라인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전략적 계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쿠웨이트에서 열린 이 협약은 환경 보호를 위해 컨테이너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체결됨
 - 지난해 머스크라인은 중동계 대형물류기업 어질리티(Agility)와 2020년까지 컨테이너 운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5%를 삭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음
- 머스크라인과 이퀘이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까지 감축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2013~2016년 동안 두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으로 연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수송 루트의 최적화, 공간 활용 및 기타 혁신적인 모범경영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5%이상 감축시킴
- 이퀘이트 부사장인 Tareq Jafar Al-Kandari는 “머스크라인과의 이번 계약은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모범 사례 및 글로벌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머스크라인과 이퀘이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약



자료 : 머스크라인

자료 : htworldmaritimenews.com, 2017.2.14. / news.kuwaittimes.net, 2017.2.13.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해외현지리포트

GAC사(社), Hemas사(社)와 합작으로 스리랑카에 물류시설 건축

- GAC Sri Lanka사(社)는 Hemas Transportation사(社)와 함께 스리랑카 서부 무스라자웰라(Muthurajawela) 산업단지에 통합물류시설 건축을 시작함
 - 이번 통합물류 시설은 유통센터, 컨테이너 야드, 그리고 15 에이커 규모의 창고로 구성될 예정으로, 2017년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유통센터는 2018년 2월부터 운영될 예정임
 - 새롭게 건설 될 물류시설은 최신 리치 스택커(reach stackers) 장비를 갖추게 될 예정이며, 7단 적재가 가능하고 6,000 TEU의 수용 능력을 지닌 최신 컨테이너 터미널과 함께, 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 및 유통센터가 들어서게 될 예정임
 - 또한, 컨테이너 기지(container depot)에서는 컨테이너를 양방향으로 적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중(dual) 게이트가 물류 시설 내에 들어서게 될 예정임
 - 유통센터는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22,000개의 파레트가 놓일 수 있는 시설로 지어질 예정임
 - GAC Sri Lanka의 Mahesh Kurukulasuriya 상무이사는, 이번 합작투자는 자사의 도약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스리랑카의 GAC사(社)는 1991년 콜롬보에서 8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6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국가적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해 오고 있다.”고 언급함
 - “이번 통합물류시설의 건설은, 변화무쌍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임
 - Hemas Integrated Logistics사(社)의 Kasturi Chellaraja Wilson 상무이사는, “이번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리랑카가 아시아에서 해운 및 물류 허브가 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의 수출입 기업들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함
- 한편, GAC사(社)는 지난 2016년 12월에도 두바이에 물류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바 있음
 - 72,900개의 파레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 중에 있는 창고 시설은, Jebel Ali 와 Dubai Airport Free Zones에서의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 두바이 남부 물류구역에 건설 중에 있는 창고는 2017년 4/4분기에 완공되어 2018년 1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음
-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GAC사(社)의 사업 확대⁷⁾
 - GAC사(社)는 대만의 선박중개업(ship agency services) 사업을 위해, 기존 타이페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소에 더하여, 카오슝 항만에도 새로운 사무소 운영을 시작함

7) GAC사(社) 보도자료 (www.gac.com)



- 태국에서는 GAC Group과 Thoresen Thai Agencies plc사(社)가 합작투자 형태로 운영 중인 GAC Thoresen Logistics사(社)가, 태국 아마쿤나콘(Amata Nakorn) 공단의 식용(food-grade) 유통시설 확장 및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음

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 2017.1.30. / www.themaritimestandard.com, 2016.12.15.

신성호 해외현지에이전트
oxygen0070@kmi.re.kr